

안세영 '금빛 출격'... 무적행진 잇는다

애프터 선수권 이후 3주간 재정비 오늘 개막 전영오픈 우승 야심 韓 선수 첫 대회 2연패 도전장 올해 벌써 3승... 컨디션 절정 대진은 좋아 결승행 탄탄대로

새해에도 적수 없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세계 최강' 안세영(사진)이 베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 전영오픈에 출격한다.

세계베드민턴연맹(BWF) 여자단식 랭킹 1위 안세영은 3일 영국 버밍엄 유틸리타 아레나에서 막을 올리는 2026 전영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달 27일 현지에 도착해 적응훈련에 나섰다.

지난달 8일 아시아단체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의 첫 우승을 이끈 안세영은 약 3주간의 충분한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한번 '달빛 스매시'를 가동한다.

1899년 시작해 올해로 116회째를 맞은 전영오픈은 최고 권위 베드민턴 대회다.

총상금 145만 달러(약 20억6600만 원)가 걸린 슈퍼 1000 등급이며, 1차 세계대전(1915~1919년), 2차 세계대전(1940~1946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이자, 한국 베드민턴 단식 선수 사상 최초의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안세영은 2023년 '천적' 천위페이(중국)를 꺾고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한국 여자단식 선수로 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4강에서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발목을 잡혔지만, 지난해에 왕즈이(중국)를 꺾고 두 번째로 정상에 올랐다.

과거 박주봉, 정명희, 길영아 등 전설적인 복식 스타들이 이 대회 연패를 달성한



사례는 있었으나 한국 단식 선수가 2년 연속 시상대 맨 위를 지킨 적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다.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과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175달러)을 갈아치우며 베드민턴 역사를 새로 쓴 안세영은 올해도 독주 중이다.

안세영은 새해 첫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곧바로 인도오픈도 2연패를 이루며 2주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아시아단체선수권에서도 정상을 밟아 안세영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공식전 연승 기록을 '32'로 늘렸다. 대진운도 따라준 덕분에 큰 변수만 없다면 전영오픈 우승까지 가는 길은 평탄할 것으로 보인다.

'숙적' 천위페이와는 준결승에서 대결이 예상되며,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 전승을 거두며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세계 2위 왕즈이와는 결승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초반부터 쉼 없이 이어진 안세영의 연승 행진이 베드민턴 본고장 영국 코트도 강타할 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글: 사진-연합뉴스

안세영 주요 우승 기록

날짜	등급	대회
1	2025년 1월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2	1월	슈퍼 750 인도 오픈
3	3월	슈퍼 300 올림피아드 마스터스
4	3월	슈퍼 1000 전영오픈
5	6월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
6	7월	슈퍼 750 일본 오픈
7	9월	슈퍼 750 중국 오픈
8	10월	슈퍼 750 덴마크 오픈
9	10월	슈퍼 750 프랑스 오픈
10	11월	슈퍼 500 호주 오픈
11	12월	월드투어 파이널스(왕중왕전)
12	2026년 1월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13	1월	슈퍼 750 인도 오픈
14	2월	아시아단체선수권(단체전)



지난달 26일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의 가데나 구장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클래식(WBC) 대한민국 야구대표팀과 삼성 라이온즈 연습경기. 5회말 1사 대표팀 3번 타자 김도영(왼쪽)이 안현민에 이어 홈런을 날린 뒤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 8강 가능하지만 확신 못 해”

美야후스포츠, WBC C조 전망 대만전 반드시 이겨야 유리



3월 개막하는 월드베이스클래식은 WBC에서 한국의 8강 진출은 '가능하지만 확실치는 않은 목표'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WBC C조를 전망하는 기사를 지난달 27일 게재했다.

C조에 편성된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체코는 일본 도쿄에서 경쟁하며 풀 리그를 벌여 상위 2개국이 8강이 겨루는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야후스포츠는 한국에 대해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부진을 겪은 한국은 토너먼트 진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지만 확실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만과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강점으로 KBO리그에서 뛰는 안현민(KT 위즈)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소속인 이정후(샌프란시스코)와 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등이 포진한 외야를 지목했다. 반면 투수진이 약점이라고 평가했다. 류현진(한화 이글스)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WBC에 나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1987년생인 그가 투수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메이저리그 경력의 데인 더닝(시애틀 매리너스)의 합류가 도움이 되겠지만 2023년 WBC에서도 투수 쪽에서 약점을 노출한 만큼 고영표, 소형준(KT 위즈), 손주영(LG 트윈스), 정우주(한화) 등이 더

나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 플레이어로는 김도영(KIA 타이거즈),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병기로는 안현민을 각각 꼽았다.

한국팀의 경쟁 상대 대만에 대해서는 "한국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며 "대만은 젊은 선수들이 주를 이루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강점으로도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주목됐다.

야후스포츠는 "잠가국 중 MLB 구단별 '톱30' 유망주가 가장 많은 팀이 대만"이라며 "내야수 리하오여우(디트로이트)와 조너선 롱(시카고 컵스)은 타격 능력이 뛰어난 야수"라고 언급했다. 다만 MLB닷컴은 이날 "룡이 왼쪽 팔꿈치 이상으로 WBC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만의 약점은 MLB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MLB 경력 선수는 스투어트 페어차일드(클리블랜드 가디언스) 1명뿐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선수로는 리하오여우, 알려지지 않았으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는 투수 쉬위시(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선정됐다.

일본은 역시 C조의 강력한 1위 후보로 평가됐다. 라인업 자체가 팀의 강점으로 평가됐고, 약점은 외야 수비로 지목됐다. 주전 중견수로 예상되는 스즈키 세이(컵스)의 경험이 많지 않고, 좌익수 요시다 마사타카(보스턴 레드삭스)의 수비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익수로 예상되는 곤도 겐스케(소프트뱅크)는 지난해 허리 부상으로 기동력이 저하됐다는 평가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5일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구단주 된 호날두

스페인 프로축구 2부 UD 알메리아 지분 25% 인수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살 나스르 사진)가 스페인 프로축구 2부 구단주가 됐다.

영국 BBC 등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호날두가 스페인 프로축구 2부 리그 팀인 UD 알메리아의 지분 25%를 인수해 공동 구단주가 됐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최근 설립한 'CR7 스포츠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알메리아 구단 지분을

사들였다. 재정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알메리아 구단은 지난해 5월 사우디 투자 그룹에 인수됐다.

호날두는 성명을 통해 "구단 성장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진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장 밖에서 축구에 기여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가져온 야망이었다"고 덧붙였다.

알메리아에 대해서는 "탄탄한 기반과 뚜렷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페인 클럽"이라고 소개했다.

1989년 창단된 알메리아는 2023~2024시즌 스페인 1부 리그(라리가)에서 20개 팀 중 19위에 처져 강등됐고, 올 시즌 현재 2부 리그 22개 팀 중 3위를 달리고 있다.



자연이 준 선물 정선 약도라지!

국내산 청정 강원도 약도라지 100%

자연에서 나온 약도라지를 정성을 다해 다듬은 뒤, 저온에서 72시간 추출하여 한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웃이랑에서 정성과 고민을 다해 만든 정선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은 강원도 산 속 깊은 곳의 순수한 자연에서 자란 자연산 약도라지만을 사용하여 제대로 만든 제품입니다.

- 無 색소!
- 無 설탕!
- 無 첨가제!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보다 좋습니다!

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 약도라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정선 자연순 약도라지 진액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딛고 자란 3년 이상된 약도라지만을 엄선, 직접 슬라이스하여 통째로 72시간동안 진하게 달여 완성시켰습니다. 게다가 색소, 방부제 첨가가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도라지 특유의 씹싸름한 맛을 줄이기 위해 국내산 쌀조청을 일부 첨가하여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을 순하게 배합하였습니다. 거기에 합성 감미료, 착향료, 설탕, 색소가 일절 첨부되지 않은 원료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진한 약도라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無 색소! 無 설탕! 無 첨가제! 오직 도라지만을 통째로 넣어 맛이 깊고 진합니다!

자연순 정선약도라지 당도 측정 Brix 77.8% 순수한 약도라지의 맛!

황사,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이 걱정될 때!

정선 약도라지 진액고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평소 목이 자주 칼칼거리어서 불편하신 분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황사, 미세먼지, 배기가스, 흡연 등 나쁜 공기에 시달리시는 분
- 선생님, 학원강사 등 목을 많이 쓰시는 분

주문전화 : 1588-6232 입금계좌 : 농협 301-0280-1454-01 주식회사 웃가네 ·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인혜택

· 제조원 : 농업회사법인(주)글로벌금산진생 /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명리길 29-16 · 유통전문판매원 : (주)웃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1, 남신빌딩 4F